Analyst: Yuanta Research (중국)
+86 21 6187 3832 / research@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완화 속 창업판 15.8%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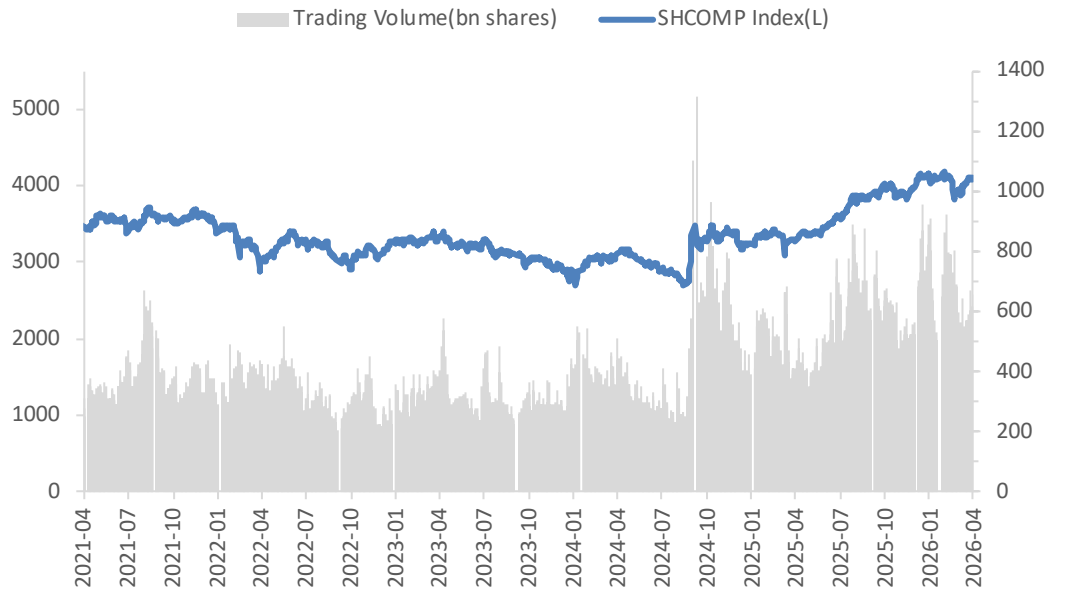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완화 속 창업판 15.8% 반등. DeepSeek V4의 중국산 칩 호환 완료: 4월 A 주 시장은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4월 29일 기준 상해종합지수는 월간 5.5% 상승했고, 창업판은 15.8%의 두드러진 반등을 기록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RMB2.5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변수로 작용해왔다. 한편 미국 내 부정적인 규제 이슈와 Fed 금리 인하 기대 확대가 맞물린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주간 기준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약화되고 위험선호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절 연휴 이후 주요 A 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구조적 차별화가 핵심 시장 흐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연휴 이후 장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남은 1분기 실적 발표와 업종별 밸류에이션 회복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낙관론 관점의 자산 배분 전략을 유지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에너지 금속 섹터: 제한적인 광산 공급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수혜로 단기간 강한 상승 모멘텀이 예상된다. 리튬 산업체인의 밸류에이션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탄산리튬 광산 조업 재개 상황과 현물 가격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컴퓨팅 파워 섹터의 구조적 기회: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들(컴퓨팅 파워 현지화, PCB, 액냉), 명확한 수주 기반을 갖춘 부문들에 주목해야 한다. 3) 높은 배당금과 현금 흐름을 갖춘 은행 및 수력 발전 자산: 계속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감안했을 때, 방어적 자산 배분 가치를 갖춘 이 섹터들이 안정적인 기반 자산으로 삼기에 훌륭한 선택지라고 판단된다.

주: 발간일 2026.05.06

# 중국 시황

상해종합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Yuanta Investment Consulting